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칼. 라이네케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Op.167》의 1, 2악장에 관한 분석 연구

-푸케의 소설 『운디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구 연 진

칼. 라이네케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Op.167》의 1, 2악장에 관한 분석 연구  
-푸케의 소설 『운디네』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 미 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구 연 진

# 인 준 서

구연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 신 인 선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지 형 주 .....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 김 미 영 .....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칼 라이네케(Carl Reinecke, 1824-1910)의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에 관한 연구이다. 라이네케는 1882년 작가 푸케(Friedrich de la Motte Fouqué, 1777-1843)의 소설 『운디네』에 영감을 받아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를 작곡하였다.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학을 음악으로 표현한 표제음악이다. 본 논문은 소설의 주인공 운디네를 중심으로 음악과 소설을 비교하여 곡의 흐름을 파악하고 작곡가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곡가 라이네케의 생애와 작품경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작품에 영감을 준 작가 푸케와 소설 『운디네』를 쓴 배경 및 내용을 조사하였다. 셋째,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전 악장의 전반적인 악곡 형식을 소설의 내용과 비교하여 고찰하였고, 전곡 4악장 중 운디네의 성향이 잘 나타난 1, 2악장을 중심으로 집중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제1주제에서 도약하는 음형으로 이루어진 a, b 음형이 제시되며 제2주제선율에서 16분음표로 이루어진 c음형이 나타난다. a, b, c음형은 1악장 전반에 걸쳐 반복·제시되고 있으며 1, 2악장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악장에서는 인간과의 사랑으로 영혼을 얻고 싶어 하는 천진난만한 운디네의 모습을 표현한 듯하다.

제2악장은 론도형식으로 A부분의 주제선율은 16분음표의 음형이 스타카토와 함께 제시되며 B부분은 부점리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규칙적인 악곡구조로 춤곡느낌을 준다. C부분은 *Più lento, quasi Andante*의 빠르기 변화와 함께 서정적인 선율로 제시된다. 제2악장은 천진난만하며 변덕스러운 운디네가 홀트브란트(Huldbrand)와 사랑하는 모습을 묘사한 듯하다. 제2악장 A부분의 주제선율은 제1악장의 제2주제의 c음형을 차용하여 제시된다. B부분

은 도약하는 음형으로 이루어진 점이 제1주제의 도약 진행하는 a, b음형과 연관성 있게 제시되며, C부분의 주제선율은 아치형선율이라는 점이 제1악장의 제1주제 선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1악장에 제시되는 주제선율이 2악장에서 연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라이네케가 소설의 등장인물이나 장면을 세세히 묘사한 것이라기보다 소설의 주인공인 물의요정 운디네가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의 주요표현 내용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운디네의 성향을 표현하는 음악적 재료의 연관성 및 곡의 통일성은 이어지는 3, 4 악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 < 목 차 >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칼 라이네케의 생애와 작품세계 .....	4
1. 라이네케의 생애 .....	4
2. 라이네케의 작품세계 .....	5
III. 푸케의 소설 『운디네』 .....	8
IV. 칼 라이네케의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작품분석 및 문학 적 해석 .....	12
1. 전악장의 전반적인 형식구조와 이에 상응하는 소설내용 .....	12
2. 제1악장 분석 .....	15
3. 제2악장 분석 .....	43
V. 결론 .....	57
참고문헌 .....	60
ABSTRACT .....	63

## <표 목차>

<표 1> 라이네케의 주요작품 .....	7
<표 2>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각 악장별 구성과 소설 내용 .....	14
<표 3> 제1악장의 형식 구조 .....	42
<표 4> 제2악장의 형식 구조 .....	55

## <악보 목차>

<악보 1>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9.....	16
<악보 2>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9-20.....	17
<악보 3>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21-28.....	18
<악보 4>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29-33.....	19
<악보 5>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33-40.....	20
<악보 6>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39-50.....	22
<악보 7>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50-60 .....	23
<악보 8>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61-71.....	24
<악보 9>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71-80.....	25
<악보 10>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81-93.....	27
<악보 11>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93-107.....	28
<악보 12>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07-117.....	29
<악보 13>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21-132.....	30
<악보 14>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33-144.....	32
<악보 15>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45-154.....	33
<악보 16>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67-176.....	34
<악보 17>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77-185.....	36
<악보 18>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93-204.....	37
<악보 19>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220-230.....	39
<악보 20>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241-252.....	40
<악보 21>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253-267.....	41
<악보 22>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1-14.....	44
<악보 23>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15-22.....	45

<악보 24>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23-32.....	46
<악보 25>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32-48.....	48
<악보 26>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49-57.....	49
<악보 27>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58-65.....	50
<악보 28>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65-66.....	50
<악보 29>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95-97.....	51
<악보 30>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98-105.....	52
<악보 31>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114-121.....	53
<악보 32>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122-131.....	54
<악보 33>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98-105.....	56
<악보 34>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4악장, 마디279-288.....	56

## I. 서론

19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에 일어난 예술상의 한 경향을 낭만주의 음악이라고 한다. 낭만주의 음악, 즉 낭만음악(romantic music)의 낭만(romantic)의 어원은 프랑스어 ‘로망(roman)’에서 시작되었다. 로망은 중세 유럽의 통속 소설을 뜻하는 말이며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을 로망스(romance)라고 한다. 이와 같이 낭만주의 음악은 소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와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 1797-1856) 등의 시들이 낭만주의 시대 여러 음악가들의 작품에 인용되어 작곡되었던 것처럼 낭만주의 시대 음악가들은 문학을 음악에 결부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은 중세 기사적 영웅담 등 비현실적인 주제와 비과학적인 이야기거리를 통하여 작곡가의 주관적, 개인적 생각을 음악에 담아내었으며 문학과 음악을 결부시켜 표현하였다.<sup>1)</sup> 이러한 문학이나 회화,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을 표제음악이라고 한다. 이 표제음악은 바로크시대에 객관적 묘사였지만 낭만주의시대에는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표제음악이 발달하였고, 인상주의시대에는 분위기의 암시로까지 변화되었다. 표제음악은 사실적인 묘사에서부터 분위기를 묘사하는 음악, 그리고 표제가 곡의 내용을 나타내는 음악이 있다.<sup>2)</sup> 차이코프스키(Piotr Ilyitch Tchaikovsky, 1840-1893)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연극을 음악적으로 자세히 묘사하기 보다는 두 가문의 불화, 사랑 등 음악적 처리에 적합한 내용을 선택하여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작곡가에 따라서 표제적 소재의 음악을 표현하는 방

1) 김태용, 『5일 만에 끝내는 클래식 음악사』 (서울: 소울메이트, 2018), 282-283.

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2576&cid=60517&categoryId=60517>[2020년 5월 29일 접속].

법은 다르게 나타난다.

칼 라이네케는 19세기에 활동했던 독일출신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 겸 작곡가이다. 소설 『운디네』에 착안하여 1882년에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를 작곡하였다. 소설 『운디네』의 작가인 푸케는 소설 『운디네』를 썼던 1811년을 포함한 1808년부터 1820년까지 전성기를 누렸으며 낭만주의 돈키호테라고 불릴 만큼 그 시대의 중심인물로 자리 잡았던 독일작가이다. 소설 『운디네』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동시대의 예술가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호프만(E.T.A. Hoffmann, 1776-1822)의 오페라 《운디네》(Undine)와 프레드릭 애쉬튼(F. Ashton, 1904-1988)이 안무를 한 발레작품 《온딘》(Ondine)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에 영감을 주었다. 라이네케 또한 소설 『운디네』를 읽고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를 작곡하였으며 현대에 플루트 문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라이네케의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는 국내 학위논문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물이 나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악곡 분석 연구<sup>3)</sup>, 앙상블을 위한 분석<sup>4)</sup>과 아티클레이션을 중심으로 연주를 위한 분석<sup>5)</sup>, 플루트 연주자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sup>6)</sup>들이 대부분이며 소설 『운디네』와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였다. 김세영은 소설 장면을 악곡과 연결시켜 분석하였으며, 소설의 내용이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에 음악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sup>7)</sup> 김혜지는 소설 『운디네』의 흐름에 따라 라

---

3) 지혜선, “라이네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 167 “Undine”의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박혜림, “Carl Reinecke “Undine” sonata for flute and piano op.167에 대한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 김소희, “앙상블을 위한 Carl Reinecke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 작품 분석 및 이해”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 강이은, “칼 라이네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e단조 Op.167 ‘Undine’의 아티클레이션 중심의 연주법 비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 김정은, “Carl Reinecke의 Flute sonata op.167 “Undine”에 관한 고찰 : 플루트 주자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7) 김세영, “Carl Reinecke의 Flute Sonata Op.167 “Undine”에 나타난 표제적 음악적 요소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이네케의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를 분석하였으며, 소설의 내용과 상황, 장면을 음악적 흐름과 연결시켜 연구하였다.<sup>8)</sup> 필자는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와 소설 『운디네』를 장면이나 상황과 연결하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운디네의 표현 소재인 각 악장들의 주제선율들의 관계와 음형들의 연관성에 집중하여 분석하며, 소설의 주인공이자 작품의 표제인 운디네가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표제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작곡가 라이네케의 의도를 파악하여 악곡의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좀 더 완성도 있는 연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곡가인 라이네케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소설 『운디네』의 전반적인 내용과 작가인 푸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전악장의 형식과 음악적 내용에 대해서 개괄 한 후 이를 푸케의 소설과 연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악장으로 이루어진 플루트 소나타에서 요정으로서의 운디네의 성향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1악장과 2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1악장과 2악장을 음악적으로 집중 분석하여 음악과 소설의 관계를 좀 더 면밀히 고찰할 것이다.

---

8) 김혜지, “Carl Reinecke Sonata “Undine” : Friedrich Fouqué의 문학작품 “Undine”를 통해서 본 표제적, 음악적 분석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II. 칼 라이네케의 생애와 작품세계

### 1. 라이네케의 생애

칼 라이네케는 독일 함부르크(Hamburg) 근처 알토나(Altona) 출신의 음악가이다. 라이네케는 당시 음악교사이자 음악이론가였던 아버지 루돌프 라이네케(Rudolf Reinecke, 1795-1883)로부터 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sup>9)</sup> 7살 때 작곡 공부를 시작했으며,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지휘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Beethoven Piano Concerto in C Major) 2악장을 연주하며 데뷔하였다.

라이네케는 1843년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연주를 하였고, 이후 라이프치히에서 슈만(R. Schumann, 1810-1856)과 멘델스존(F. Mendelssohn, 1809-1847)을 만나고 그의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낭만주의 협주곡과 가곡작품에서는 슈만의 색채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sup>10)</sup>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덴마크 코펜하겐(Copenhagen)의 크리스티앙 8세(Christian VIII)의 궁정 피아니스트로 임명되었고 독주회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자 하인리히 빌헬름 에른스트(Heinrich Wilhelm Ernst, 1814-1865)의 반주자로서도 임무를 다하였다. 그 후 파리에서는 피아노의 거장 리스트의 딸인 코지마(Cosima Wagner, 1837-1930)의 피아노 교사로 활동하였으며 리스트는 라이네케에 대해서 아름답고 온화하며 서정적인 터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sup>11)</sup>

1851년에 라이네케는 쾰른(Cologne)으로 이주하여 힐러스 콘서바토리

9) 사진편찬위원회 편,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출판사, 1982), 337.

10) 김용환, 『19세기 음악』 (서울: 음악세계, 2012), 140.

11) Reinhold Sietz, "Reinecke, Carl (Heinrich Carsten),"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1980), 15: 718.

(Hiller's Concevatory)에서 대위법과 피아노를 가르친다. 1854년부터 1859년까지는 바르멘(Barmen)에서 합창단을 지휘하였는데, 합창단의 음악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 후에는 브레슬라우(Breslau)에서 음악 교수를 하게 되고, 징아카데미(Singakademie)의 지휘자로도 활동하며 합창곡을 연구하고 대합창의 공연을 하였다.<sup>12)</sup>

1860년 라이네케는 멘델스존이 지휘하였던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Gewandhaus Orchestra) 지휘자로 활동하였으며, 라이프치히 콘서바토리의 작곡 및 피아노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1895년까지 30년 이상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1897년에는 라이프치히 콘서바토리의 교장으로 임명되어 유럽에서 권위 있는 학교 중 하나로 발전시켰고, 그리그(Edwards Grieg, 1843-1907)를 포함하여 수많은 음악가들을 배출시켰다. 라이네케는 그의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Flute sonata Undine)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고 다재다능한 음악가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다.<sup>13)</sup> 1902년 라이프치히 콘서바토리에서 은퇴하였지만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하였고 1910년 라이프치히에서 향년 85세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 2. 라이네케의 작품세계

라이네케의 작품은 오페라, 교향곡, 협주곡, 소나타, 피아노 등 전 장르에 걸쳐 출판 작품만으로 300곡 이상이 되는 작품을 작곡하였다. 그의 작품들 중에서, 초기 작품은 멘델스존, 쇼팽(Franciszek Chopin, 1810-1897), 슈만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후기 작품은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12) 박세원, 『음악인명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587.

13) [https://en.wikipedia.org/wiki/Carl\\_Reinecke](https://en.wikipedia.org/wiki/Carl_Reinecke)[2020년 3월 14일 접속].

라이네케는 “브람스를 기념하며(To the memory of Brahms)”라는 부제가 붙은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를 작곡하기도 하였다.

피아니스트로서는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해석에 뛰어났으며, 모차르트,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베버(Carl Maria Friedrich Ernst von Weber, 1786-1826)의 피아노 협주곡들에 붙인 카덴짜들은 매우 유명하며 지금까지도 널리 연주되고 있다.<sup>14)</sup>

그는 피아노 작품을 많이 작곡하였는데, 이 곡들은 낭만주의 시대 가정음악(Hausmusik)<sup>15)</sup>의 좋은 예이다. 그의 선율은 온화하고 때로는 장엄하며 슈만의 화성 스타일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오페라에서는 바그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sup>16)</sup>

라이네케는 실내악 작품들도 많이 작곡하였는데, 목관 8중주, 목관 6중주 등 각 악기의 독특한 음색이 잘 어우러진 곡을 작곡하였으며, 클라리넷, 호른, 오보에 같은 관악기를 피아노와 함께 편성시킨 op. 188, op. 264, op. 274를 작곡하였다. 이것을 통해 라이네케가 관악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라이네케의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와 《플루트 협주곡》은 플루트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 작품들은 플루트 문헌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현재까지도 연주자들에 의해 많이 연주되어지고 있다. 라이네케의 주요 작품들을 소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표 1>.<sup>17)</sup>

14) 사전편찬위원회 편,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출판사, 1982), 337.

15) 하우스무지크(Hausmusik) : 주로 독일에서 15, 16세기경부터 시민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연주되는 형태를 취하면서 발달한 음악으로 20세기 이후 독일에서는 이 하우스무지크를 널리 권장하였다. 『과플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울 : 삼호뮤직, 2002).

16) <https://www.allmusic.com/artist/carl-reinecke-mn0001775558/biography>[2020년 3월 14일 접속].

17) Reinhold Sietz, “Reinecke, Carl (Heinrich Carsten),” 15: 719.

<표 1> 라이네케의 주요작품

오페라	König Manfred, comic opera. Op. 93(1867) Ein Abenteuer Händels, operetta. Op. 104(1874) Auf hohen Befehl, comic opera. Op. 184(1886) Der Gouverneur von Tours, comic opera.(1891)
교향곡	제1번 Op.79(1858), 제2번 《하콘 야를》 (Hakon Jarl) Op.134(1874), 제3번 Op.227(1895),
협주곡	첼로 협주곡 Op.82(1866), 바이올린 협주곡 Op.141(1877) 하프 협주곡 Op.182(1885), 플루트 협주곡 Op.283(1908) 피아노 협주곡 제1번 Op.72(1879), 제2번 Op.120(1873) 제3번 Op.144(1878), 제4번 Op.254(1900)
실내악	피아노, 오보에와 호른을 위한 3중주 Op.188(1887) 피아노, 클라리넷과 호른을 위한 3중주 Op.274(1905) 목관 6중주 Op.271(1905) 목관 8중주 Op.216(1892) 현악3중주 Op.249(1898) 현악4중주 Op.34(1853), Op.272(1905) 현악5중주 Op.16(1850),Op.30(1852),Op.132(1874), Op.211(1891), Op.287(1891) 피아노 3중주 Op.38(1854) 피아노 5중주 Op.83(1866)
소나타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Undine) Op.167(1882) 바이올린 소나타 Op.108(1873), Op.116(1872), Op.238(1896),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42(1855), Op.89(1869), Op.238 (1896)

### Ⅲ. 푸케의 소설 『운디네』

16세기의 스위스 의학자이자연금술사인 파라켈수스(Paracelsus Theophrastus von Hohenheim, 1493-1541)는 물의 요정 이름을 ‘운디네’<sup>18)</sup>라고 하였다. 파라켈수스는 땅, 물, 바람, 불의 네 가지 원소로 만들어진 요정들은 육체만 갖고 있어서 인간과 결합하여야만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sup>19)</sup> 푸케는 이것에 영감을 받아 1811년 소설 『운디네』를 쓰게 되었다. 소설 『운디네』는 물의 요정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이다. 소설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큰 호수가 있는 깊은 숲속 오두막집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노부부는 호숫가에서 자식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두막집 앞에 나타난 운디네를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양녀로 삼게 된다.

숲을 헤매다가 우연히 오두막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홀트브란트는 운디네를 보고 반하게 되고 운디네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홀트브란트에게는 베르탈다라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운디네는 홀트브란트와 결혼을 하고 그를 따라나서기로 한다. 결혼 후 조심성 있는 수줍은 여인으로 변한 운디네는 홀트브란트에게 자신은 인간과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만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물의 정령임을 밝히고 홀트브란트는 사랑을 맹세한다.

홀트브란트는 운디네와 결혼을 하고 자신이 떠나온 성으로 함께 돌아가게 되고, 전 약혼녀인 베르탈다와 같이 지내면서 운디네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베르탈다에 대해 점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운디네는 물 근처에 있을 때 자신을 욕하면 친척들인 물의 정령들이 자신의 동족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자신을 물밑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물 근처에

---

18) 운디네(Undine):라틴어로는 운디나(Undina)라고 칭하였으며, 후에 18세기에는 독일식으로 운디네라고 바뀌어 썼다.

19) <https://namu.wiki/w/운디네>[2020년 3월20일 접속].

있을 때는 자신을 욕하지 말아 달라고 홀트브란트에게 당부를 하였다. 그러나 결국 도나우 강으로 뱃 여행을 하던 중 홀트브란트가 물 위에서 운디네를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되어 운디네는 물 밑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 후 홀트브란트는 베르탈다와의 결혼식을 앞두고 샘물에 대한 경고를 받는 꿈을 꾸다. 이 샘은 물의 정령들이 현실 세계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이다. 운디네의 동족인 물의 정령들이 통로를 드나들며 베르탈다를 괴롭혀서 운디네가 담아 놓은 샘이었다. 그러나 베르탈다가 홀트브란트와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담아놓은 샘을 열어 자신의 세숫물을 가져오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여 운디네가 다시 홀트브란트의 앞에 나타나게 된다.

물의 정령의 법칙에 따르면 운디네와의 사랑을 저버린 홀트브란트의 생명을 빼앗지 않을 수 없었다. 운디네는 눈물을 흘리며 한 번의 키스로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 그 후 홀트브란트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초대받지 않은 흰옷의 낯선 여인 왔다. 고인을 위해 명복의 기도를 드리고 일어섰을 때 흰옷의 여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아나 그의 묘지 옆으로 흘러 들어갔다. 후대에 이르러 마을 사람들은 운디네가 이 샘을 감싸 안고 있다고 믿었다.<sup>20)</sup>

푸케는 소설 『운디네』를 썼던 1811년을 포함한 1808년부터 1820년 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시인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 1788-1857)는 그를 “낭만주의의 돈키호테”라고 부르며 낭만주의 중심인물이라고 언급했고, 시인 하이네도 “사랑스러운 한 편의 시”라고 극찬을 하며 모든 대중에게 유일하게 감동을 준 작품을 쓴 낭만주의 작가라고 평가하였다.<sup>21)</sup>

푸케는 어렸을 때부터 클롭슈톡(Friedrich Gottlieb Klopstock, 1724-1803)의 시를 읽는 것을 좋아하고 기사(騎士)의 세계를 동경하는 소년 시절을 보냈다. 그 영향으로 푸케는 수많은 기사소설로 당대의 인기를 모았다. 그가

---

20) Friedrich de La Motte-Fouqué, 『물의 요정 운디네』, 차경아 번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0). [필자가 요약하였음.]

21) 위의 책, 155-157.

쓴 『북방의 영웅』은 니벨룽겐문학의 효시로 알려졌으며, 『마술의 반지』, 『아일랜드의 티오돌프』 등 또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sup>22)</sup> 특히 1811년에 쓴 『운디네』는 환상적인 요소와 동화 같은 이야기 전개로 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푸케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운디네』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데, 호프만은 친구인 푸케의 소설 『운디네』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오페라 《운디네》(Undine)를 작곡을 하였고, 1816년 베를린의 샤우스필하우스(Schauspielhaus)에서 초연을 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후 1845년 호프만의 오페라를 로르칭(Gustav Albert Lortzing, 1801 - 1851)이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바꾸어서 대중들의 많은 인기를 얻었다. 1837년에는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 1805-1875)이 『인어공주』를 출간하며 창작 작품이라고 하였지만 『운디네』가 1811년에 출간되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유럽 전 지역에 번역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소설 또한 『운디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3)</sup>

『운디네』가 유럽 전역에 걸쳐 인기를 얻자 드보르자크(Antonín Leopold Dvořák, 1841-1904)는 『운디네』를 배경으로 ‘체코어 판 인어공주’인 오페라 《루살카》(Rusalka)를 작곡하여 1901년 3월 체코 프라하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발레작품으로도 여러 차례 만들어졌는데 발레 《온딘》(Ondine)은 1958년 프레드릭 애쉬튼이 3막5장으로 안무를 하였고, 독일 작곡가 헨체(Hans Werner Henze, 1926-2012)가 음악을 작곡하여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소설 『운디네』는 동시대의 예술가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오페라, 소설, 발레 작품 등 다양한 장르로 각색되었다. 괴테는 『운디네』가 “정말로 너무나 사랑스럽다”라고 하였으며 바그너는 임종하는 날까지 이 소설을

---

22) 위의 책, 155.

23) 최민숙, 이은화, 『물의 요정을 찾아서』(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160-168.

읽었다고 한다.<sup>24)</sup>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는 소설 『운디네』에 착안하여 1882년 작곡가 라이네케에 의해 작곡되었다. 4악장에 걸쳐 소설의 내용이 묘사되어 있으며 소설의 배경과 문학적 요소들을 음악적으로 잘 결합시켜 나타내고 있다. 소설 『운디네』를 표제로 하는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는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으며 플루트 문헌에 가치 있는 작품으로 남아 있다. 소설 『운디네』는 이처럼 음악에 큰 영향을 준 소설 작품으로 평가될 만하다.

---

24) 최민숙, 위의 책, 150-151.

## IV. 칼 라이네케의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작품분석 및 문학적 해석

### 1. 전악장의 전반적인 형식구조와 이에 상응하는 소설내용

제1악장은 e단조이며 6/8 박자의 Allegro 빠르기이고, 제시부-발전부-재현부-코다의 소나타 형식을 가진다. 제시부는 제1주제 부분, 경과부, 제2주제 부분, 코데타로 구성된다. 제시부는 e단조로 시작하며, 짧은 음가로 도약하는 a와 b음형으로 이루어진 제1주제가 천진난만 하며 변덕스러운 운디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경과부에서는 제1주제 음형이 변형되며 16분음표로 이루어진 제2주제의 c음형이 선행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플루트 성부에서 D, C#음의 반복으로 제2주제의 음형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제2주제를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제2주제부분은 제1주제와 대조적으로 서정적이다. 플루트성부에서 점4분음표와 점2분음표로 이루어진 긴 음가들이 순차진행하며, 피아노 상성부에서 지속하는 16분음표의 짧은 c음형들은 운디네의 세계인 넘실거리는 호수를 묘사하는 듯하다. 제2주제가 제시되고 코데타에서는 제1주제와 제2주제의 요소들인 a, b, c음형이 변형, 반복되며 발전부로 연결된다.

발전부는 제1부분, 제2부분, 제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잦은 전조와 반음계적 진행으로 조성적 긴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a, b, c음형들이 각 성부에서 변형, 발전된다. 발전부에서는 인간이 되기를 갈망하는 운디네의 모습을 그리는 듯하다.

재현부의 코다에서는 제1주제의 a, b음형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피아노성부에서 긴 음가들이 평화롭고 고요한분위기로 진행되며 잔잔해진 물의 흐름을

표현하는 듯하다. 코다는 원조인 e단조로 돌아가며 곡이 마무리 된다.

제2악장은 b단조, 2/4박자의 론도형식으로 Allegretto vivace-Più lento, quasi Andante-Allegretto vivace 빠르기 변화가 나타난다. 제2악장은 A-B-A'-C-A"로 구성되어 있으며 16분음표로 이루어진 스타카토의 빠른 음형들이 홀트브란트와 사랑을 하기 전 물의정령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자유분방하며 예측할 수 없는 운디네의 모습을 묘사하는 듯하다. Più lento, quasi Andante의 빠르기 변화가 나타나는 C부분(마디98-131)에서는 느리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홀트브란트와 만나면서 사랑을 느끼는 운디네의 모습을 표현하는 듯하다.

제3악장의 조성은 G장조로 4/4박자의 A-B-A'로 구성된 3부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Andante tranquillo-Molto vivace-Tempo I의 빠르기 변화와 함께 G장조-b단조-G장조의 조성의 변화로 대조성을 나타낸다. 제3악장에서는 홀트브란트와 사랑을 하는 운디네와 인간과의 사랑을 통해 불안을 느끼는 운디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제4악장은 e단조의 조성이며, 4/4박자의 A-B-A'-코다로 이루어진 3부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Allegro molto agitato ed appassionato, quasi Presto-Un poco più tranquillo-più mosso-più lento의 잦은 빠르기의 변화와 함께 A-B-A'-코다로 구성되었으며, 조성은 e단조-B장조-e단조-E장조로 전조되며 진행된다. 제4악장은 운디네가 홀트브란트에게 배신을 당하고 느끼는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듯하다. <표 2>는 지금까지 설명한 전 악장의 전반적인 형식구조와 이에 상응하는 표제적 내용이다.

<표 2>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각 악장별 구성과 소설 내용

악장	조성	박자	빠르기	형식	소설 내용
제 1 악장	e단조	6/8	Allegro	소나타 형식	-천진난만하며 변덕스러운 운디네, -물의 요정 운디네의 세계인 넘실거리는 호수 묘사
제 2 악장	b단조	2/4	<Intermezzo> Allegretto vivace -Più lento, quasi Andante -Allegretto vivace	론도 형식	-자유분방하며 제멋대로인 물의 정령 운디네, -홀트브란트와 사랑을 하는 운디네
제 3 악장	G장조	4/4	Andante tranquillo -Molto vivace -Tempo I	3부 형식	홀트브란트를 사랑을 하지만 인간과의 사랑을 통해 불안을 느끼는 운디네
제 4 악장	e단조	4/4	Allegro molto agitato ed appassionato, quasi Presto -Un poco più tranquillo -più mosso -più lento	3부 형식	홀트브란트가 배신하여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운디네

라이네케는 이처럼 4악장의 소나타 형식 속에 물의 요정 운디네의 천진한 성향과 인간세계와의 접촉으로 겪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악장 중 운디네의 자유분방함이 잘 나타난 제1악장과 제2악장을 중심으로 집중분석을 하고자 한다.

## 2. 제1악장 분석

### 1) 제시부(마디1-80)

제1악장은 6/8박자, e단조이며 Allegro 빠르기의 곡이다. 제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코다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부는 제1주제부분(마디1-28), 경과부(마디29-39), 제2주제부분(마디40-61), 코데타(마디61-80)로 이루어져 있다.

#### (1) 제1주제부분(마디1-28)

제1주제부분은 첫 번째 단락(마디1-9), 두 번째 단락(마디9-17), 세 번째 단락(마디21-28)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제1주제의 핵심적 요소인 주제선율이 마디1-5의 첫 박까지 플루트성부에서 제시되며, a와 b음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a음형은 8분음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4도, 5도 도약으로 진행된다. b음형은 4분음표 8분음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3도 도약으로 제시된다. 짧은 음가의 도약으로 이루어진 이 음형은 1주제의 핵심요소로 1악장 전체에 걸쳐 전 성부에 제시되며 곡의 통일성을 이룬다.

e단조의 으뜸화음 구성음으로 이루어진 주제선율(마디1-5)은 첫 박에 쉼표가 나와서 약박부터 시작하여 상, 하행 도약하는 선율로 동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 피아노성부는 수직적 화성진행으로 호모포니<sup>25)</sup>적이다. 으뜸화음으

로 제시되며 긴 음가의 지속음(pedal point)이 플루트성부와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마디5-9의 첫 박까지 제1주제 선율이 반복되며 마디8에서 i-V로 진행한다. 이것은 마디9-20까지 V도 진행으로 이끌어주는 예비 역할을 한다 <악보 1>.

<악보 1>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9

Allegro. ♩ = 166

두 번째 단락(마디9-20)은 e단조의 V 화성에서 진행된다. 마디9-16에서 제1주제선율이 변형되며 플루트성부와 피아노 하성부에 번갈아가며 폴리포니<sup>25)</sup> 짜임새가 나타난다. 마디17-20까지는 피아노성부만 연주하며 피아노 상성부에서 제1주제의 a음형이 피아노 하성부에서 겹쳐서 모방하여 나타나는 스트레토기법으로 제시되고 있다<악보 2>.

25) 호모포니(homophony): 주선율인 한성부를 다른 성부가 화성적으로 반주하는 형태의 음악을 의미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4954&cid=43667&categoryId=43667>[2020년 5월11일 접속].

26) 폴리포니(polyphony): 독립적인 선율이 둘 이상의 성부에 동시에 구성되는 음악을 말한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f0052cf4f2d45258d89d2596caf2186>[2020년 5월11일 접속].

<악보 2>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9-20

세 번째 단락(마디21-28)은 마디17-20의 리듬을 타고 마디21-28에서 주제 선율이 반복 제시되며 마디21에서 e단조의 으뜸화음으로 조성이 확립된다. 마디21-29에서 마디1-5의 반복구가 나타나며 플루트성부에서 주제선율이 제시되는데, 마디1-4 피아노상성부의 긴 음가의 화음이 오스티나토<sup>27)</sup> 형태로 바뀌어 나타난다. 오스티나토 리듬의 동적인 움직임이 mf의 셈여림 변화와 함께 제시된다.

27) 오스티나토(ostinato):어떤 일정한 음형을 같은 성부에서 같은 음의 높이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1195&cid=60517&categoryId=60517>[2020년 5월12일 접속].

마디25에서 e단조의 i 화음이 b단조의 iv 화음과 공통화음으로 전조되며 마디27에서 b단조의 ii도 감7화음이 올린다<악보 3>.

소설 『운디네』에서 운디네는 인간과 사랑의 결합을 통해서만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물의 정령으로 영혼을 얻기 위해 인간세계에 오게 된다. 천진난만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요정 운디네의 성향이 제1주제부분에서 8분음표와 4분음표가 상, 하행 도약하는 a, b음형으로 이루어진 선율로 표현되어 있다.

<악보 3>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21-28

제1주제 선율

오스티타토

em: i V

i bm: iv ii°7

(2) 경과부(마디29-39)

경과부는 마디29-39로 b단조의 V에서 진행된다. 경과부는 첫 번째 단락(마디29-33)과 두 번째 단락(마디33-39)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 마디

29-33에서 제1주제의 요소인 a와 b음형이 피아노 상성부와 플루트성부에서 주고받으며 변형되어 제시된다. 마디29-30에서는 mf로, 마디 31-32는 p의 대조되는 셈여림으로 반복하며 진행된다<악보 4>.

<악보 4>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29-33

경과부는 제2주제로 가기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부분으로 두 번째 단락인 마디33부터 피아노 상성부에 16분음표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c음형이 제시되며 피아노하성부에서는 긴 음가의 화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플루트성부에서는 D<sub>5</sub>음의 꾸밈음과 C<sub>#</sub>의 지속음의 반복으로 긴장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제2주제 선율의 D, C<sub>#</sub>음을 먼저 제시함으로 제2주제가 시작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악보 5>. 피아노 상성부의 16분음표로 이루어진 c음형은 물이 흐름을 묘사하는 듯하며 제2주제부분에서도 c음형이 반복되며 제시된다.

<악보 5>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33-40

꾸밈음 D와 지속음 C# 반복: 제2주제 선율을 예비함

c음형

*mf*

*mf espress.*

(3) 제2주제부분(마디40-61)

제2주제부분은 첫 번째 단락(마디40-50)과 두 번째 단락(마디50-61)으로 나뉜다. 제2주제부분은 경과부의 b단조의 V화성 연장 가운데 마디40에서 시작하며 플루트성부에서 제시되는 mf의 셈여림과 함께 경과부의 긴장감이 계속 연결되며 진행된다.

소나타형식에서 제2주제는 단조일 경우 제1주제의 나란한조 또는 같은 으뜸음조로 전조되는데, 나란한조인 G장조로 바로 전조되지 않고 경과부의 b단조로 시작한다는 점이 고전주의 소나타형식에서 벗어나 낭만주의적 요소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과부의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

한 작곡가의 의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제1주제는 플루트성부에서 8분음표와 4분음표가 도약하며 진행된다. 제2주제는 이와 대조적으로 플루트성부에서 점4분음표와 점2분음표의 긴 음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서정적인 선율로 나타난다. 긴 음가의 화성진행이 i 화성 안에서 제시되던 제1주제와는 다르게 제2주제의 피아노상성부에서는 짧은 16분음표의 분산화음들이 V 화성 안에서 긴장감 있게 나타난다.

마디44에서 b단조의  $i_4^6$ 화음이 G장조의  $\text{III}_4^6$ 화음으로 공통화음 전조된다. G장조는 원조인 e단조의 관계조로서 마디45-49까지 V-I 를 반복하다가 마디49에서 V7-I 으로 정격종지 되며 긴장감이 완화된다<악보 6>.

<악보 6>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39-50

제2주제 선율

(제2주제 선율)

(제2주제 선율)

(제2주제 선율)

두 번째 단락은 마디50-60까지로 G장조의 I 화성으로 시작된다. 피아노 상성부에서 긴 음가로 이루어진 제2주제 선율이 반복되며 제시되고 있다. 피아노 상성부에서만 사용했던 c음형이 피아노 하성부와 상성부에서 주고받으

며 음역대가 넓어지면서 깊은 물결의 움직임은 나타내는 듯하다<악보 7>.

<악보 7>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50-60

50

50

*espress.* 제2주제 선을 반복

*f* *dolce*

GM: I

c음형

56

(제2주제 선을 반복)

*f* *dim.*

(c음형)

경과부에서 제시되어 제2주제부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c음형인 16분음표의 움직임은 호수의 넘실거리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물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듯한 이러한 빠른 음형들의 동적인 움직임은 물의 정령인 운디네의 세계의 표현으로 느껴진다.

(4) 코데타(마디61-80)

코데타는 첫 번째 단락(마디61-71)과 두 번째 단락(마디71-80)으로 나뉜다. 코데타의 첫 번째 단락은 G장조 으뜸화음 화성으로 시작하며 피아노상성부

에서 제1주제의 a, b음형이 변형되어 반복된다. 마디61-68 피아노하성부의 내성에서 점2분음표의 지속되는 음(D<sub>3</sub>)이 제1주제 선율인 a, b음형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한다. 플루트 성부에서는 제2주제의 요소인 긴 음가의 서정적인 선율이 p의 조용한 분위기로 부드럽게 펼쳐진다<악보 8>.

<악보 8>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61-71

제2주제 요소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61-65) shows the flute part with a melodic line and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a sustained D3 in the bass. The piano part has a 'D지속음' (D sustained) annotation. The flute part has annotations for 'a음형' and 'b음형 변형'. The second system (measures 66-71) continues the flute melody and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has annotations for 'b음형', 'b음형 변형', and 'b음형'. The flute part has annotations for 'b음형' and 'a음형'. The dynamics range from *p dolce* to *f*. A 'GM: I' box is located at the bottom left of the first system.

두 번째 단락은 마디71-80이다. 마디71의 피아노상성부에 제1주제의 a음형이 제시되고 마디72의 플루트성부에서 b음형이 변형·제시된다. 마디74-77까지 플루트성부에서 제2주제의 요소인 c음형이 나타나며, 마디78에서 피아노

성부에서 받아 상행진행 한다. 마디70-77까지 연속적인 V7- I 을 반복하면서 마디77에서 완전중지 된다. 즉 코데타에서는 제시부의 제1주제, 제2주제의 음형들이 함께 제시되며 연계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악보 9>.

<악보 9>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71-80

71

b음형 변형

c음형

mf

sempre p

f

p

GM: I V<sup>7</sup> I V<sup>7</sup> I<sub>4</sub><sup>6</sup> V<sup>7</sup>

76

1. 2.

c음형

sf

pp

sf p

I<sub>4</sub><sup>6</sup> V<sup>7</sup> I

2) 발전부(마디81-176)

발전부는 제1부분(마디81-120), 제2부분(마디121-144), 제3부분(마디145-176)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제1부분(마디81-120)

제1부분은 첫 번째 단락(마디81-93), 두 번째 단락(마디93-107), 세 번째 단락(마디107-120)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은 마디81-93이다. 제시부에서의 제1주제가 e단조의 으뜸화음에서 시작되는 것과 다르게 e단조의 딸림화음에서 시작되며 긴장감 있게 진행된다. 마디81-84에서 플루트성부에 제1주제 주제선율이 반복되며 마디85-88에서는 피아노성부와 플루트성부에 제1주제의 주제선율인 a, b음형이 변형되어 제시되고, 피아노 상성부와 하성부에서 a, b음형을 주고받으며 반복된다. 마디89-93의 피아노성부는 e단조의 V 화음으로 진행되며, 플루트성부에서는 제2주제의 요소인 16분음표로 이루어진 c음형들이 반복되고, 마디92-93에서 하행하는 선율을 나타내면서 마디93에서 f#단조로 전조된다<악보 10>.

<악보 10>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81-93

두 번째 단락은 마디93-107로 마디93에서 f#단조로 전조되며 마디93-99 피아노 상성부와 하성부에서 점2분음표로 이루어진 f#단조의 감7화음이 반복되어 제시된다. 감7화음의 긴장감 있는 울림과 함께 피아노 상성부와 피아노 하성부에 제1주제의 a, b음형이 번갈아가며 울린다. 마디99-103에서 16분음표의 C#5과 D5음의 트릴음형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마디104-107까지 상행하는 선율이 나타나면서 마디106-107에서 V7- I로 조성이 확립된다<악보 11>.

<악보 11>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93-107

93

93

mf

f

b음형

a음형

f#m: vii<sup>o</sup><sub>3</sub>

99

C#, D 반복

espress.

vi<sup>o</sup><sub>3</sub>

상행진행

104

p

i

V<sup>7</sup>

I

세 번째 단락은 마디107-121으로 제1부분에서 제2부분으로 가는 연결구이다. 마디108-120은 f#단조에서 c#단조를 통해 C#장조로 전조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피아노 상성부에서는 16분음표로 이루어진 c음형이 트릴음형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마디108-117 플루트 성부와 피아노 하성부에서 제2주제의 요소인 긴 음가들이 제시되며 선율의 흐름을 강조시키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악보 12>.

<악보 12>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07-117

107 제2주제 요소  
*p* 트릴음형  
*p* 6도 병진행  
*cresc.*  
 f#m: 제2주제 요소

113 *piu f*  
 113 *f*  
 c#m:

(2) 제2부분(마디121-144)

제2부분은 첫 번째 단락(마디120-132)과 두 번째 단락(마디132-144)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의 마디120은 C#장조로 전조되어 시작된다. 으뜸화음 연장 안에서 플루트 성부에 제1주제 선율이 제시되며, 한 마디 단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아노 상성부가 주제선율을 스트레토로 모방한다. 마디 128-130의 피아노 상성부에서 G#4음이 반복되며 강조되고 마디130-131에서 플루트성부의 G#음이 A♭음의 이명동음으로 제시되어 E♭ 장조로 이명동음 전조가 된다. 마디131-132에서는 A♭음이 3옥타브 위까지 상행하는 선율로 진행하며 조성의 색채적 변화가 나타난다<악보 13>.

<악보 13>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21-132

제1주제 선율

121

*p*

모방

121

*p*

*mf* *espress.*

C#M: I

127

G# ≅ A♭

G# 반복

상행

A♭

*f*

E♭M:

두 번째 단락은 마디133-144로 피아노 상성부에서 점2분음표와 점4분음표로 이루어진 제2주제의 선율이 변형되고 이 선율이 c음형과 함께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처럼 피아노상성부에서 제2주제적 요소가 연주될 때 플루트성부에서는 제1주제의 a, b음형의 요소가 울린다. 즉 1주제와 2주제 요소들이 대위되고, 발전되며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마디133-144 피아노 하성부의 화음들이 반음계적으로 상행하며 제3부분으로 긴장감 있게 연결된다 <악보 14>.

<악보 14>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33-144

133

133

제2주제 요소

*mf*

c음형

a음형 변형

반음계적 상행진행

*cresc.*

137

b음형 변형

a음형 변형

*cresc. poco a poco*

137 (제2주제 요소)

(c음형)

*poco*

*a*

*poco*

(반음계적 상행진행)

141

a음형 변형

(제2주제 요소)

*f*

141 (제2주제 요소)

(c음형)

(반음계적 상행진행)

(3) 제3부분(마디145-176)

제3부분은 두 단락(마디145-168와 마디168-176)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마디145-168)은 제2부분의 반음계적 진행으로 이어지며, 원조인 e단조의 버금딸림조인 a단조로 전조되어 시작한다. a단조의 으뜸화음에서 플루트성부의 주제선율(마디145-148)이 제시된다. 피아노성부에서는 긴 음가의 화성들이 주제선율을 뒷받침한다. 마디149에서 e단조의 딸림화음으로 전조되며 마디149-153의 피아노성부와 플루트성부에서 제1주제 음형들이 변형되어 나타난다<악보 15>.

<악보 15>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45-154

제1주제 선율

145 *f* *p*

145 *f* *p* a음형 b음형 변형

am: i em: i<sub>4</sub>

화성적 진행

151

b음형 변형 b음형

151 b음형 변형 a음형 (vii<sup>°6</sup>) (vii<sup>°7</sup>) V

V

두 번째 단락(마디168-176) 마디168-173의 피아노 상성부는 화음형태로 하행진행하고, 피아노 하성부에서는 8분음표의 분산화음으로 상행진행하면서 반음계적 반진행을 이루고 있다. 플루트성부에서는 트릴음형이 반복되고, 상행하는 선율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마디173-174가 마디175-176에서 동형진행 되고, 마디173-176 피아노성부에서 긴 음가의 수직적 화성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로 이완되며 긴장감이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재현부로 연결된다<악보 16>.

<악보 16>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67-176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67 to 171. It includes a flute part with a trill (트릴음형) and a piano part with descending (반음계적 하행) and ascending (반음계적 상행) chromatic lines.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72 to 176. It features a flute part with a trill and a piano part with a homophonic progression (동형진행) and vertical chords (수직적 화성). Dynamics include *p* and *pp*, and a *decrescendo* marking is present in the piano part of the first system.

발전부는 e단조에서 시작하여 e단조-f#단조-C#장조-E b 장조-a단조-e단조로 잦은 전조가 나타나며 조성적 긴장감을 준다. 반음계적 진행과 트릴음형으로 선율적인 측면에서도 긴장감을 주며, 제1주제 a, b음형과 제2주제의 c음형이 계속해서 변형되어 반복·제시되고 있다.

발전부는 선율적, 조성적인 긴장감을 통해 분위기가 극대화 되는 부분이다. 제1주제 요소인 a, b음형과 제2주제 요소인 c음형이 반복되며, 혼합되어 발전되어 나타나면서 인간과의 사랑의 결합으로만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물의 요정 운디네가 홀트브란트와 만나면서 갈망을 느끼고 마음 속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3) 재현부

재현부는 제1주제부분(마디177-205), 경과부(205-220), 제2주제부분(마디220-240), 코데타(마디241-252), 코다(마디253-267)로 구성되어 있다.

#### (1) 제1주제부분(마디177-205)

두 단락으로 나뉘는 제1주제부분의 첫 번째 단락(마디177-196)은 e단조의 으뜸화음으로 시작되며 제시부에서 플루트성부에 주제선율이 제시되었던 것과 다르게 피아노 성부가 주제선율을 연주한다. 플루트 성부에서는 발전부의 제3부분에서 제시되었던 16분음표의 c음형들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음악의 흐름이 지속되는 느낌을 준다. 마디181-184에서 주제선율이 변형되어 반복하는 형태를 보인다<악보 17>.

<악보 17>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177-185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177-181, and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182-185. The flute part (top staff) features a melodic line with a 'c음형' (c-sharp form) marking. The piano accompaniment (bottom staff) includes a '제1주제 선율' (First Theme Melody) and a '제1주제 선율 변형, 반복' (First Theme Melody Variation, Repeat). The piano part has a 'p' dynamic marking. The score includes chord symbols: em: i<sub>4</sub>, V<sup>7</sup>, i, V/V, and V<sup>7</sup>.

두 번째 단락(마디197-204)은 마디193-196의 피아노 상성부와 하성부에서 제1주제의 a음형이 스트레토기법으로 반복되고, 마디197에서 e단조의 으뜸 화음으로 조성이 확립되면서 시작된다. 마디197-204의 플루트성부에서 제1주제 선율이 반복된다. 피아노 상성부의 리듬이 제시부에서는 8분음표로 제시되었던 반면 재현부에서는 리듬을 세분화 시켜 16분음표의 분산화음으로 나타난다. 마디201-203 피아노 하성부에서 E<sub>2</sub> -D<sub>2</sub> -C#<sub>2</sub> 음으로 하행하면서 마디204-205에서 F#장조로 전조 된다<악보 18>.



(2) 경과부(마디205-220)

경과부의 첫 번째 단락(마디205-213)은 제시부의 경과부(마디29-33)의 변형·반복이다. 마디203에서 F#장조의 V 화음의 C#음이 나오면서 마디205에서 F#장조의 I 화음으로 자연스럽게 경과부가 시작되며<악보18>, 피아노 상성부와 플루트성부에서 제1주제의 a, b음형들이 번갈아가며 단편적으로 등장한다. 마디208에서 g#단조로 전조되며 마디219까지 g#단조의 V 화성에서 진행된다. 두 번째 단락(마디213-219)은 피아노성부가 제시부와 동일한 선율로 제시되고 있으며 g#단조 V로 진행된다.

(3) 제2주제부분(마디220-240)

경과부의 g#단조 V가 계속되는 흐름 속에서 제2주제의 선율이 등장한다. 마디224에서 원조인 e단조와 같은 으뜸음조인 E장조로 전조되며 마디228-229에서 으뜸화음으로 조성이 확립된다. 제시부에서는 제2주제가 b단조로 시작하여 G장조로 전조되는 반면, 재현부에서는 g#단조로 시작하여 E장조로 전조되며, 선율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리듬으로 제시된다<악보 19>. 제2주제 부분의 두 번째 단락인 마디231-240은 제시부와 동일한 선율로 진행된다.

<악보 19>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220-230

제2주제 선율

220 *p*

220 *pp*

**g#m:** V EM: V<sup>7</sup> I

226 *espress.*

*mf*

V<sub>3</sub><sup>4</sup> I V<sub>2</sub><sup>4</sup> I<sup>6</sup> V<sup>7</sup> I

(4) 코데타(마디241-252)

코데타는 E장조로 시작하며, 제시부의 코데타인 61-65와 동일하게 시작되나 마디246-252은 변형·축소되어 나타난다. 마디 241-251의 피아노성부에서는 제1주제의 선율이 변형되어 제시되고, 마디251-252의 플루트성부에서 받아서 반복되며 상행하는 선율로 나타난다. 마디249에서 원조인 e단조의 으뜸화음으로 전조되며 코다로 연결된다<악보 20>.

<악보 20>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241-252

241 제시부 코데타와 동일한 리듬제시  
제1주제 선을 변형

248 제시부 코데타의 축소, 변형  
제1주제 선을 변형

EM: I

em: i<sub>4</sub> V<sup>7</sup>

(5) 코다(마디253-267)

e단조의 으뜸화음에서 시작되며 플루트 성부의 높은음역대에서 제1주제 선율이 제시된다. 마디260-265까지 제1주제의 음형들이 변형되어 피아노 상성부와 플루트성부에서 번갈아가며 나타난다. 피아노성부는 점2분음표의 긴 음가의 화성이 반복되며 정적인 분위기로 이완된다. 코다는 전체적으로 pp의 조용한 셈여림표현과 정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며, 평온한 물의 세계에 동화되어 있는 운디네를 표현하는 듯하다.

마디266-267에서 iv - i의 변격종지로 종결되고, 마디267에서 페르마타로

긴 여운을 주면서 1악장이 마무리된다<악보 21>.

<악보 21>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1악장, 마디253-267

<코다: 제1주제 요소 인용>

253 *p* *pp*

253 *pp*

em:

i

260

260

iv i

(i)

아래의 <표 3>은 지금까지 설명한 제1악장의 형식구조에 상응하는 내용에 대한 정리이다.

<표 3> 제1악장의 형식 구조

형식	구분	마디	구성	특징
제시부 (Exposition)	제1주제	1-29	e단조	a음형(8분음표 도약진행), b음형(4분음표, 8분음표 도약진행) 제시
	경과부	29-40	b단조	제1주제의 a, b음형 사용, 제2주제의 c음형(16분음표의 빠른 음형) 제시
	제2주제	40-61	b단조-G장조	c음형 사용
	Codetta	61-80	G장조	제1주제의 a, b음형 변형·반복 제2주제의 c음형 변형·사용
발전부 (Development)	제1부분	80-120	e단조-f#단조	제1, 2주제 발전 (a, b, c음형이 대위되고 변형되며 사용됨)
	제2부분	121-144	C#장조	
	제3부분	145-176	a단조-e단조	
재현부 (Recapitulation)	제1주제	177-205	e단조	제1주제 재현
	경과부	205-220	F#장조-g#단조	제1주제의 a, b음형 변형·반복, c음형 사용
	제2주제	220-241	g#단조-E장조	제2주제 재현
	Codetta	241-252	E장조-e단조	제시부 소종결구 변형·재현
Coda		253-267	e단조	제1주제의 a, b음형 변형·사용

### 3. 제2악장 분석

제2악장은 2/4박자의 A-B-A'-C-A"의 론도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테르메조(Intermezzo) 곡이다. 론도형식은 중심이 되는 주제부가 삽입부를 사이에 두고 반복되는 구조로서 그 주제부를 르프랭(refrain)이라 하고, 중간 삽입부를 쿠플레(couplet), 영어로 에피소드(episode)라고 한다.<sup>28)</sup> 보통 소나타 형식에서 제2악장에 느린 악장이 배치되는데,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에서는 빠른(Allegretto vivace) 론도형식이 제2악장에 나타나며 자유로운 형식구조로서 낭만주의적 요소가 보이는 부분이다. 2악장은 A(마디1-32)-B(마디33-65)-A'(마디66-97)-C(마디98-131)-A"(마디132-163)로 구성되어 있다.

#### 1) A부분(마디1-32)

A부분은 a(마디1-14), b(마디15-22), a'(마디23-32)로 구성되어 있다. A부분은 론도형식의 주제부인 르프랭으로 b단조의 으뜸화음에서 f의 셋여림과 함께 피아노성부에서 시작된다. a부분은 마디1-14으로 마디1의 피아노상성부에서 b단조의 으뜸화음인 B, D, F#의 구성음과 아포자투라(app)의 수식음으로 시작되며, 반음상행 하행 도약하는 음형으로 이루어진 d음형이 제시된다. 마디1에서 피아노성부가 먼저 시작되고, 마디2-3 플루트성부의 악박에서 주제선율이 시작된다. 플루트 주제선율이 제시될 때 피아노성부는 화음으로 진행한다. 피아노성부에서 ii 반감7화음의 올림이 주제선율을 뒷받침하여 울린다(마디2).

주제선율은 플루트 성부의 높은 음역에서 도약진행으로 나타나며 16분음표의 리듬과 스타카토로 발랄하고 익살스러운 물의 요정 운디네의 모습을 묘

---

28) 윤양석, 『음악 형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6), 102-103.



b부분(마디15-22)은 pp의 썸여림과 함께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된다. 마디 15의 피아노 하성부에 베이스화성이 먼저 제시되며 피아노 상성부에서 d음형이 상행하는 음형으로 변형·반복되고 플루트성부에서 주제선율이 변형·제시된다. 마디15-18이 마디19-22에서 동형진행의 형태로 나타난다<악보 23>.

<악보 23>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15-22

(b)

15

주제선율

d음형

pp

p

15

pp

d음형 변형

espr.

19

d음형

d음형 변형

mf

19

p

d음형 변형

동형진행

a'부분(마디23-32)은 마디23에서 b단조로 전조된다. a부분 마디1의 반음상행 하행 도약하는 16분음표 음형들이 마디23에서 상행하는 선율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마디27-32는 마디10-14의 반복구로 변형되어 제시된다.

마디30-32 플루트성부에서부터 시작하여 피아노 상성부, 피아노 하성부의 순서로 b단조의 으뜸화음으로 구성된 16분음표 아르페지오의 음들이 하행하면서 B부분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마디31-32에서 b단조의 V-i로 정격종지된다<악보 24>.

<악보 24>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23-32

(a')

23 *p* *p* 마디10-14의 반복구

23 *mf* 마디1의 변형 *p*

**bm:** *i* *sf* 하행선율 *p*

28 *sf* *p*

*i*<sub>6</sub><sup>4</sup> - V<sup>7</sup> *i*

제2악장의 A부분과 제1악장의 제1주제, 제2주제를 비교하여 볼 때, 제1악장 제1주제와 제2악장 A부분은 약박에서 선율이 시작되며 짧은 음가의 음형들이 도약하며 진행되는 것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제2주제의 요소인 c음형을 차용하여 제2악장의 A부분의 주제선율이 나타난다. 16분음표

의 빠른 음형의 도약진행과 스타카토는 인간세계에 왔지만 물의 요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변덕스럽고 익살스러운 운디네의 모습을 표현하는 듯하다. 즉 인간과의 사랑을 하기 전의 운디네는 이렇게 신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물의 정령으로서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 2) B부분(마디 33-65)

B부분은 론도형식의 삽입부에 해당하는 에피소드1이다. G장조로 전조되며 시작한다. B부분은 a(마디33-40)+a'(마디41-48)+b(마디49-57)+a'(마디58-65)의 형태로 제시되며 8+8+9+8마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마디32-33 피아노 하성부에서 8분음표의 B<sub>1</sub> -A<sub>1</sub> -G<sub>1</sub> 음이 순차 하행하여 자연스럽게 G장조로 전조되면서 B부분이 시작된다.

부점 리듬이 특징인 B부분은 A부분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이다. B부분을 시작하는 선율은(마디33, 41, 58) 약박에서 시작하여 도약한다는 점에서 제2악장의 A부분(마디1) 시작과 비슷하다. 마디33-40과 마디41-48은 4+4의 규칙적인 악절구조로 단순한 성향을 보이고 부점리듬으로 춤곡 느낌을 주며, 친진난만하며 변덕스러운 물의요정의 춤을 추는 모습을 표현한 듯하다. 피아노성부만 연주하며 마디33-36의 피아노 상성부에서 주제선율이 제시된다. 마디33-34의 피아노 내성에서는 반음상행하고 하행 도약하는 A부분의 d음형이 부점리듬으로 변형되어 울린다. 마디41-48에서 a부분인 마디33-40의 반복구가 제시된다. 마디46에서 G장조의 딸림화음인 D장조로 전조되며 마디47-48에서 V-I로 정격종지 된다<악보 25>.

<악보 25>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32-48

**B(a)**

32

주제선율

A부분 마디1과 유사

다음형 변형

B A G V7

**GM: I**

(a) 반복구

반음계적 상행

다음형 변형

V7 I I

43

V7 I

**DM: IV** → V7 I

a부분의 4+4마디의 규칙적인 악절구조가 b부분(마디49-57)에서는 9마디의 불규칙 악절구조로 변형되어 제시되며, a부분에서 제시되던 부점리듬이 b부분 피아노상성부에서 8분음표로 리듬이 바뀌어 제시된다. 마디33-48까지 피아노 솔로로 진행되고 마디50부터 플루트성부가 제시되며 마디49-53에서 피아노 하성부의 부점 리듬과 플루트성부가 주고받는 형태로 반복·제시된다. 마디54-57까지 새로운 리듬인 셋잇단음표가 피아노성부에 나타난다. 피아노 상성부의 8분음표와 피아노 하성부의 셋잇단음표가 엇갈려 제시되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나타낸다<악보 26>.

<악보 26>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49-57

(b)

부점리듬 반복

mf

f

p calando

셋잇단음표 제시

마디58-65에서 a부분(마디33-40)이 변형·반복되며, 마디58에서 G장조로 전조되어 마디64-65에서 V - I 로 정격종지 된다<악보 27>.

<악보 27>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58-65

(a)

58 *a tempo*

58 *f* 다음형 변형

다음형 변형

다음형 변형

GM: I V<sup>7</sup> I V<sup>7</sup> - V<sup>7</sup>/IV IV V<sup>7</sup> I

3) A'부분(마디66-97)

A'부분은 원조인 b단조로 전조되며 시작한다. 마디65의 G장조의 으뜸화음 구성음인 B음과 마디66의 b단조의 으뜸화음 구성음인 B음을 공통음으로 자연스럽게 A'부분으로 연결되며 A부분과 동일하게 제시된다<악보 28>.

<악보 28>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65-66

A' (a)

65

65 공통음

*p*

GM: I bm: i

마디95-97에서 올리는 B장조 딸림화음은 B장조인 C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또한 마디95에서 A부분의 주요리듬인 16분음표 음형의 스타카토로 상행하고 마디96-97에서 셋잇단음표리듬으로 하행을 하는데, C부분의 주요리듬인 셋잇단음표를 A'부분에서 먼저 제시함으로써 준비를 하는 역할을 한다<악보 29>.

<악보 29>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95-97

bm: V  
(= BM: V)

#### 4) C부분(마디98-131)

C부분은 삽입부인 에피소드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A부분 b단조의 같은 으뜸음조인 B장조로 시작하고, 빠르기가 Più lento, quasi Andante로 변화된다. C부분은 a(마디98-105)+a(마디106-113)+b(마디114-121)+a(마디122-131)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정적인 선율로 A부분과 대비된다. 레가토로 연주되는 플루트성부는 8분음표와 4분음표 중심의 아치형 선율구조로서 제1악장의 제1주제와 연관성 있게 제시된다. 불임줄을 이용하여 당김음의 효과를 주며 서정성이 강조된다. 피아노성부는 셋잇단음표의 리듬으로 잔잔히 흐르는 물을 형상화 하면서 신비로운 느낌을 조성한다<악보 30>.

<악보 30>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98-105

**C (a)** *Più lento, quasi Andante.* 주제선율

98. 당김음 효과

98. *pp*

102.

102.

마디106-113은 a부분인 마디98-105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반복구의 형태이다. b부분은 마디114-121로 a부분의 pp에서 더욱 여리게 표현된 ppp의 셋여림과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이며, a부분에서는 화성적으로 제시되는 피아노 하성부의 음형들이 b부분에서 셋잇단음표가 나타나며 좀 더 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악보 31>.

<악보 31>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114-121

(b)

114

114

118

118

피아노 하성부 셋잇단음표 제시

마디122-131에서 a부분(마디98-105)이 변형·반복되며 mf의 셈여림으로 제시된다. 마디128-131에서는 2분음표의 긴 음가의 음형으로 변형되며 점점 어리게 표현된다. C부분은 B장조의 V 화성(마디130-131)으로 마침으로써, 끝나지 않는 분위기로 A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악보 32>.

<악보 32>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122-131

(a')

122 *mf* 섬여림 변화

126 *dim.* a부분 변형, 긴음가 제시

**BM: V<sup>7</sup>**

C부분은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듯한 서정적인 선율과 함께 화성적인 변화가 없이 제시되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5) A”부분(마디132-163)

A부분이 동일하게 제시되며 곡이 마무리된다. 아래의 <표 4>는 지금까지 설명한 제2악장의 형식구조에 대한 정리이다.

<표 4> 제2악장의 형식 구조

부분	마디	조성	빠르기	특징
A	1-32	b단조	Allegretto vivace	주제선율(도약진행 하는 스타카토의 16분음표 선율)제시, d음형(반음상행 하행 도약 하는 음형) 제시
B	33-65	G장조		도약진행 하는 부점리듬의 선율 제시, d음형 변형·제시
A'	66-97	b단조		A부분의 반복
C	98-131	B장조	Più lento, quasi Andante	레가토의 서정적인 선율 제시
A''	132-163	b단조	Allegretto vivace	A부분의 반복

이어지는 제3악장은 A-B-A'로 구성된 3부형식이다. A부분(마디1-35)은 G장조로 시작되며 8분음표로 이루어진 서정적인 주제선율이 제시된다. B부분(마디36-53)에서는 b단조로 전조되며 Molto vivace의 빠르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선율인 셋잇단음표 음형과 스타카토가 A부분과 대조되는 분위기로 제시되고 있다. 3악장은 인간과의 사랑으로 인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운디네의 모습을 표현하는 듯하다.

피날레(finale)인 제4악장은 피아노 상성부에서 반복되는 8분음표의 음형들이 Allegro molto agitato ed appassionato, quasi Presto의 빠르기로 격정적이고 급박한 분위기로 진행되어 비극적인 운디네의 운명을 표현하는 듯하다.

제4악장의 조성은 e단조로서 제1악장의 조성인 e단조가 회귀된다. 또한 코다부분에서는 느린 템포(Più lento)로 변화되며 제2악장의 선율이 다시 제시되면서 <악보 33>, <악보 34> E장조로 전조되어 마무리된다. 이는 다시 물의 세계로 돌아가며 평화를 얻는 소설의 종결과 상응하는 곡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전 악장은 물의 요정 운디네가 인간과 사랑하며 겪게 되는 운명을 표현하고 있으며, 음악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악보 33>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2악장, 마디98-105

2악장 주제선율

Più lento, quasi Andante.

98

98

*pp*

BM:

<악보 34>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 4악장, 마디279-288

Coda

Più lento.

2악장 C부분 주제선율 변형제시

279

279

*pp*

*una corda*

EM:

## V. 결론

낭만주의 시대의 독일출신 작곡가 라이네케는 소설 『운디네』에 착안하여 1882년에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를 작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네케가 소설 『운디네』에 영감을 받아 작곡을 했을 때 소설과 음악을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결합시켰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플루트문헌 중 현대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연주되는 곡으로 알려져 있으나 라이네케가 표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작품에 표현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와 푸케의 소설을 연관시켜 살펴보면 음악의 표제인 운디네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그리하여 연주자들에게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악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곡가 라이네케의 생애와 작품세계 대해 조사하고 소설 『운디네』의 내용과 작가인 푸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전 악장의 형식과 구조에 대해 개괄한 후 이를 푸케의 소설과 연관시켜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곡인 4악장 중 물의요정 운디네의 성향이 잘 드러나 있는 제1악장과 제2악장을 집중 분석하며 소설과 음악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소설 『운디네』는 인간과의 사랑의 결합으로만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물의 정령 운디네가 홀트브란트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영혼을 얻지만, 홀트브란트의 배신으로 그의 목숨을 빼앗고 다시 샘물로 돌아간다는, 요정과 인간의 불행한 사랑을 내용으로 한다.

제1악장은 제시부-발전부-재현부-코다의 소나타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주제부분에서 a, b음형으로 이루어진 도약하는 주제선율이 제시된다. 제2주제부분의 피아노성부에서 16분음표로 이루어진 c음형이 나타나며 플루트 성부에 긴 음가로 이루어진 서정적인 선율이 제시된다. 발전부에서는 제1주제

의 a, b음형과 제2주제의 c음형들이 각 성부에서 변형되어 반복되고 a, b, c 음형이 대위되고, 발전되며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반음계적 전조, 이명동음전조 등 잦은 전조와 함께 트릴음형, 스트레토기법으로 긴장되는 분위기가 고조되며, 재현부에는 제시부가 재현되며 나타난다.

제1악장에서는 영혼을 얻기 위해 인간세계에 온 운디네가 천진난만하고 변덕스러운 물의요정의 모습과 물의 요정 운디네의 세계인 넘실거리는 호수, 인간과의 사랑의 결합을 통해 영혼을 얻고 싶어 하는 운디네의 모습을 표현하는 듯하다.

제2악장은 A-B-A'-C-A"의 론도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A부분은 제1악장의 제2주제인 16분음표로 이루어진 c음형이 스타카토와 함께 변형되어 제시되고 반음상행 도약하행하는 음형으로 이루어진 d음형이 A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반복·제시되고 있다. B부분에서는 부점리듬의 도약하는 선율이 제1악장의 제1주제의 주제선율과 도약하는 음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B부분은 a(8마디)+a(8마디)+b(9마디)+a(8마디)로 형성되어 있으며 a부분은 규칙적인 악곡구조로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며 반복되는 부점리듬이 춤곡느낌을 준다. C부분은 Più lento, quasi Andante의 빠르기 변화와 함께 서정적인 선율로 제시되며 A, B부분과 대조적인 분위기이다. 주제선율이 도약하는 음형으로 이루어진 아치형윤곽의 선율로 제시되며 화성의 전조 없이 진행된다.

제2악장에서는 영혼을 얻기 전의 물의 정령으로서의 예측할 수 없는 운디네의 모습과 물의 요정이 춤을 추는 모습을 표현한 듯하며, 운디네가 홀트브란트와 사랑하는 모습을 묘사한 듯하다. 제2악장의 A부분은 제1악장 제2주제의 16분음표로 이루어진 c음형을 차용하여 나타나며, 제2악장의 A부분과 B부분의 도약하는 주제선율들과 C부분의 아치형윤곽이 드러나는 주제선율은 제1악장 제1주제의 a, b음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제1악장과 제2악장을 연구 분석하면서 제1악장과 제2악장의 주제선율들이 연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라이네케가 소설의 다른 등장 인물이나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 『운디네』의 주인공 운디네가 《플루트 소나타 ‘운디네’》의 주요표현 내용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운디네의 성향을 표현하는 음악적 재료의 연관성 및 곡의 통일성은 이어지는 3, 4 악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용환. 『19 세기 음악』. 서울: 음악세계, 2012.
- 김태용. 『5일 만에 끝내는 클래식 음악사』. 서울: 소울메이트, 2018.
- 윤양석. 『음악 형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6.
- 최민숙. 이은화, 『물의 요정을 찾아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 2. 번역된 단행본

- Fouqué, Friedrich de la Motte. *UNDINE*. 1811. 차경아 번역.  
『물의 요정운디네』. 서울: 문예출판사, 2000.

### 3. 학위논문

- 강이은. “칼 라이네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e단조 Op.167 ‘Undine’의 아티큘레이션 중심의 연주법 비교.”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세영. “Carl Reinecke의 Flute Sonata Op.167 “Undine”에 나타난 표제적 음악적 요소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소희. “앙상블을 위한 Carl Reinecke ‘Sonata for flute and piano in e minor, Op.167’ ‘Undine’ 작품 분석 및 이해.”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정은. “Carl Reinecke의 Flute sonata op.167 “Undine”에 관한 고찰 : 플루트 주자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혜지. “Carl Reinecke Sonata “Undine” : Friedrich Fouqué의 문학작품

“Undine”를 통해서 본 표제적, 음악적 분석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7.

박혜림. “Carl Reinecke “Undine” sonata for flute and piano op.167에  
대한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지혜선. “라이네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Op. 167 “Undine”  
의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4. 사전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출판사, 1982.

『음악인명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7.

『파퓰러음악용어사전 & 클래식음악용어사전』 서울 : 삼호뮤직, 2002.

Reinhold Sietz. “Reinecke, Carl (Heinrich Carsten).”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vol 15, edited by  
Stanley Sadie, 718. First Edition. New York: Grove’s Dictionaries  
Inc., 1980.

#### 5. 악보

Carl Reinecke Sonata “Undine”. Opus 167 For Flute and Piano Interna-  
-tional Music company New York.

#### 6. 웹사이트

[https://en.wikipedia.org/wiki/Carl\\_Reinecke](https://en.wikipedia.org/wiki/Carl_Reinecke). 2020년 3월 14일 접속.

<https://www.allmusic.com/artist/carl-reinecke-mn0001775558/biography>.  
2020년 3월 14일 접속.

<https://namu.wiki/w/운디네>. 2020년 3월20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4954&cid=43667&categoryId=>

43667. 2020년 5월11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1195&cid=60517&categoryId=60517>. 2020년 5월12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22576&cid=60517&categoryId=60517>. 2020년 5월 29일 접속.

## ABSTRACT

C. Reinecke *Flute Sonata 'Undine'*(Op.167) An  
Analysis Study on the 1st and 2nd movement  
-Focused on the Relationship with Undine,  
a novel of Fouqué-

Koo Yeon Jin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Carl Reinecke(1824-1910)'s Flute Sonata 'Undine'. In 1882, Reinecke was inspired by the novel Undine written by Friedrich de la Motte Fouqué(1777-1843), which lead him to compose Flute Sonata, 'Undine'. 'Undine' consists of four movements and is a title music which the literature is expressed as mus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the flow of this music by comparing the music and novels to the main character from the novel, 'Undine' as well as to understand the intention of the composer. Methods and conten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 and work trends of composer Reinecke were studied. Second, the writer Fouqué who influenced on the work and the

background as well as the contents of the novel 'Undine' were also covered. Third, the overall musical structure of whole movements were reviewed by comparing to the contents of the novel, analyzing 1st and 2nd movements mainly, which illustrate the characters of Undine. The analysis was resulted as below.

The first movement is presented in sonata form with figure a and b, leaping from the first theme leading to figure c with 16th notes which appears in the second theme subject melody. The figure a, b and c are repeated throughout the 1st movement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1st and 2nd movements. The first movement can be interpreted as the innocent image of Undine, who wants to win soul through love with humans.

The second movement is in rondo form, the theme melody of part A starts with staccato in the 16th notes, while the part B gives a sense of dance music with a regular music structure centered on the dotted rhythm. Part C is presented in lyrical melodies with the tempo changes, from *Più lento* to *quasi Andante*. The second movement seems to depict the innocent and capricious Undine's love towards Huldbrand.

The theme melody of part A in the second movement is presented by borrowing the figure c of the second theme from the first movement, the point that part B is a leaping melody is related to figure a and b that are disjunct motion in the 1st theme. Part C is an arch-shaped melody which is similar to the first theme from the first movement.

It seems that the theme melody presented in the first movement was related to the second movement. It is also explained that Reinecke more

focused on the main character in the novel, water sprit, Undine in Flute Sonata 'Undine', representing the main story rather than describing the details of characters or the scenes. The interrelationship and unity between the musical factors that express Undine's disposition and this work are also revealed in the third and fourth movements.